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Q• How far is too far?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일 년쯤 사귀 이성 친구가 있는데 가벼운 스킨십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 정도는 한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남자친구가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니까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데이트를 하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면 지나치게 멀리 가는 것이 될까요?(How far is too far?)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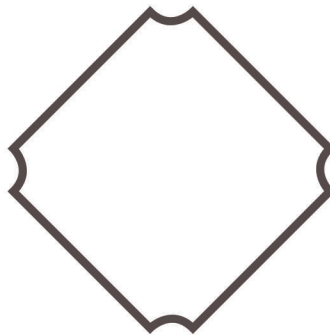
찬미 예수님!

지면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리교사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이후 미국인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사목을 했고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의 클리블랜드 교구에서 보낸 것이지요. 그 시간 동안 미국의 청소년들과 많이 만났는데요,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How far is too far?” 앞의 사연은 제가 사목 하던 미국인 성당에서 한 여고생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미국 청소년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청소년들은 이 질문의 답을 많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과연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오히려 그 친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어디까지는 괜찮을까? How far is too far?” 그러면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은 잡을 수 있다거나 포옹까지는 괜찮다는 대답, 혹은 다 되는데 성관계만 피하면 괜찮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사랑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How far is too far?

2루: 얼굴(목, 입술)

3루: 상체



1루: 손 잡기

홈: 하체(성관계)

주일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화이트 보드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야구 베이스를 그렸습니다.

위에 야구 베이스 보이시죠? 과연 공을 치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2루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3루부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난 그냥 홈런치고 홈까지 들어 갈란다.” 과연 이성 교제를 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How far is too far?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이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 친구에게서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性)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만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How far is too far? 이 질문은 그리스도교 성(性)을 이해하기 위한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미래의 내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나의 이성 친구를 어떻게 지켜 주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질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 인내, 참사랑의 덕목들이 올바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취해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조 뒤에는 당신의 숨결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존엄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성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사랑으로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교육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이 침해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대할 때, 상대방은 큰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니 죽어서도 성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인간의 성(性)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존재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을 가진 상대방을 위해 우리는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귄 때 'How far is too far?'과 같은 나 중심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긴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배려하고 지켜 주며 사랑할 수 있을까?" ^{다.케}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